

검사 안내

빈혈검사는 왜 하나?

■ 한 경 용

1. 혈액이 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아마 의학에 관한 상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몸이라고 말할 것이다. 얼마전에 우주시대를 개막하는 일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이 우주공간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우주왕복선의 실험비행 성공이다.

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눈부신 인간과학의 발달보다도 그 우주왕복선의 구성부품 수가 약 600억 개라고 하는데 있었다.

말이 600억이지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 엄청난 부품들이 서로

연관되어 각기 제기능을 발휘하여 우주공간을 날게하는 그 내부 시스템을 이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복잡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의 복잡성도 인체라고 하는 기계에 견준다면 비교의 대상이 될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고 한다.

20세기 과학이 내놓은 최고성능의 컴퓨터의 기억능력이 아직 인간 두뇌를 따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인류 최대의 정밀기계인 인체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고 그 기능을 존속시키게 해주는 각종 에너지원의 보급을 혈액이 맡아서 한다. 따

에너지원의 보급, 혈액이 맡아서 한다

라서 혈액은 인체의 동력선인 것이다.

혈액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몇가지로 말한다면,

첫째, 신체 각 조직과 세포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각종 영양소와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날라주고 돌아올 때는 탄산가스 등 신체활동으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한다.

둘째, 체액(임파액 및 조직액)의 균형유지.

셋째, 체온조절

넷째, 각종 병원균에 대한 신체방어의 기능.

다섯째, 혈액응고(상처를 입었을 때 재빨리 피가 멎도록 굳게하는 것.)

2. 빈혈이란 무엇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혈액은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빈혈이란 글자 그대로 이러한 혈액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혈액의 성분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의 혈구와 여러가지 영양성분 등을 가지고 있는 혈장 등이 있다.

이들 성분 중에서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는 것을 빈혈이라고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서도 혈색소가 부족한 경우 빈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적혈구 또는 혈색소가 어느 정도일 때 빈혈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성인 남자의 경우는 혈색소가 12gm/100 ml 이하, 여자는 11gm/100ml 이하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나이나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잡은 수치이다.

3. 빈혈이 생기는 원인

적혈구가 부족한 것을 빈혈이라고 한다면, 왜 부족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 첫째,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둘째, 만들어진 적혈구가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파괴되거나 실혈 등으로 몸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이다.

적혈구는 골수(뼈속)에서 만들어진 다음 혈관내로 나와서 약 120일 정도 우리 몸속을 돌아 다니면서 전술한 중요한 일들을 하다가 비장에서 파괴된다.

왜 골수에서 적혈구를 못 만드는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째, 재료가 없어 못 만드는 경우와.

혈색소가 부족한 경우, 빈혈이라 한다

둘째, 만드는 공장 즉 골수 자체에 이상이 있어서 못 만드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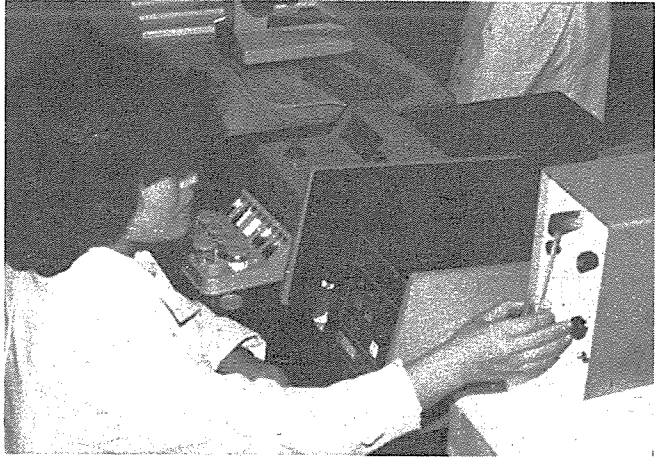
4. 빈혈의 종류

재료가 없어서 적혈구를 못 만드는 대표적인 경우는 철결핍성 빈혈을 들

수 있다. 철 성분은 혈색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성분이다.

그외에 비타민 종류(엽산, B₁₂ 등) 또는 단백질 결핍되었을 때 빈혈이 생긴다.

그리고 생산공장 즉 골수가 고장나서 적혈구를 생산 못하는 경우에는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항생제(클로로마이신 등)를 남용했을 때 골수의 기능이 저하되어 역시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이다. 골수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각종 혈액암 즉, 백혈병일 때도 빈혈이 일어난다. 또한 적혈구가 정해진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일찍 몸밖으로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치질로 인한 출혈이나 코피를 많이 흘리거나 또는 십이지장충에 의한 실혈이 있을



때 등이다. 그리고 일찍 깨어지는 것을 용혈성 빈혈이라고 한다.

5. 빈혈의 증상과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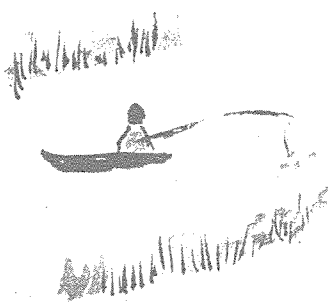
빈혈의 증상은 본인이 느끼기에 쉽게 피곤해진다든가, 식은 땀이 잘 나고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쉽게 차며 무기력하여 심하면 쓰러지기도 한다.

또한 식욕이 없고 어지러우며 머리가 아프다. 얼굴이 창백해 보이고 손바닥의 손금에 핏기가 없고 아래 눈꺼풀을 까보면 혈관이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빈혈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스스로 속단하여 임의로 약제를 복용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빈혈증상은 피곤, 식은땀, 숨이 차다.

생활정보

여름용품 손질보관



가을이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

그동안 요긴하게 사용했던 여름용품의 손질 및 보관을 서둘러야 할때다. 특히 돛자리나 밭, 여름 옷 등은

한해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닌만큼 정성들여 손질해 두어야 다음 해에 새 것처럼 쓸 수 있다.

여름용품의 손질 및 보관요령을 알아본다.

여름에 입었던 옷은 땀이 배어 있으므로 단한번밖에 입지 않은 것이라도 반드시 세탁을 해야한다. 깨끗이 씻은 옷은 옷장속에 넣어 보관하는데 반소매 남방과 와이셔츠의 경우는 칼리에 마분지 심을 넣어 상자속에 넣어두어야 모양이 일그러지지 않는다. 주름치마를 보관할 때는 옷단을 주름대로 접어서 흰실로 시척 두면 주름이 파이지 않는다.

이때 너무 팽팽히 시침질을 하면 나중에 실자국이 남으므로 조심한다.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빈혈을 진단하는 방법은 혈액소 검사사를 하면 되고 빈혈의 종류와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적혈구 수, 적혈구 용적, 혈청철농도, 총철결합능, 골수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여야 한다.

빈혈은 간단한 질환인듯 생각되나 빈혈의 원인을 찾아 거기에 해당되는 치료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의사의 진찰이 요구된다.

(필자 = 健協 서울지부 검사소장)